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난달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쳤던 연주회 모습.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곡>

“여성은 힘있는 연주 못한다는 편견 깨려 노력”

광주여성필하모닉 20년... 전공자 구성 최초 여성오케스트라 다양한 주제 470회 공연·객원지휘자 장점... 22일 정기연주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광주여성필)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여성필은 단원 전체가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여성 오케스트라다.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에서 출발한 광주여성필은 1999년 5월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470여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김노상, 최선용, 카를로 팔레스키 등 30여명의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배은환 등 300여명(단체)이 협력자로 참여했다. 단원은 현악·관악·타악 등 모두 90명이다.

창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김금이 단장에 이어 2006년부터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유정 단장을 만나 광주여성필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주여성필 탄생 배경에는 사연이 있다. 1999년 당시 김 단장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이었는데, 여성인권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당시 음악인들 사이에서 “여자는 집에서 가사·육아에 전념하느라 연습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김 단장은 “편견에 주눅들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실내악 등을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며 광주시향 현악 단원들과 목포 시향 단원, 대학 출강 중인 강사 등을 모았고 20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모여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을 출범시켰다.

“당시 단원들은 매일같이 연습을 거듭할 만큼 의욕적이었어요. 전남대·조선대 대학 연습실이나 방송사 스튜디오 등을 전전하며 연습했죠. 그 덕인지 그 해 9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창단 연주회에서 1700여석이 만석을 이뤘습니다.”

2010년 오케스트라로 변신한 광주여성필의 가장 큰 장점은 삼임지휘자를 두지 않고 매 공연마다 지휘자를 초청해

무대를 준비하는 ‘객원 지휘자 체제’다. 새로운 지휘자가 찾아올 때 늘 긴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휘자가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서다. 김 단장은 매 공연 이익금을 공금으로 모아온 후 더 좋은 지휘자를 초청하는 데 썼고, 이것이 광주여성필의 성장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여성필이 자랑하는 또 하나는 ‘연주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광주시향에서 활동할 때 2-3년에 한번씩, 기존 단원이 은퇴해야 새 단원을 뽑는 걸 보고 오케스트라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광주여성필은 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여성필은 소외계층에게 음악의 기회를 주고자 다문화 M(Multiculture)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지난 2010년부터 ‘사회통합사업 음악나눔’의 일환으로 다문화음악학교를 운영하며 다문화 가족 75명에게 무료 악기교육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8번에 걸친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지난 2013년엔 광주문화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단장이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함께 한 단원들이 “이번 연주회 행복했다” 등 메시지로 애정 어린 연락을 보내올 때다. “단원들이 여성이다 보니 결혼, 출산, 육아 등에서 애로



김유정 단장

사항이 생깁니다. 단원 중에는 10여년이 넘도록 함께 했지만 결혼 후 멀리 외지로 떠난 단원도 있어요. 그런 단원들도 광주여성필을 잊지 않고 찾아와 연주회에 참여하고, 임신 중인 단원도 “현악은 임신 9개월차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서 함께 연주하려는 모습을 보면 무척 좋습니다.”

김 단장은 광주여성필의 원동력이 서로간의 신뢰에 있다고 말했다. 단장은 단원들의 시간·개인 사정 등을 배려하며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고 단원들은 단장의 의견을 믿고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런 신뢰 관계는 단장·단원뿐 아니라 타 단체와의 협력관계에서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여성단원 뿐이라 힘 있는 연주는 못 할 것”이란 편견이 아직 남아있는지 오해를 많이 받아 왔어요. 저희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연 후엔 초청자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가 생겼는지, 지금은 여러 곳에서 협연 요청을 받아 한 달에도 4-5회의 공연을 하고 있어요. 광주여성필은 민간단체임에도 단원들이 가진 자부심과 소속감이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휘자와 협연자를 만나, 멋진 곡으로 연주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광주여성필은 지난 2016년도로 산토리홀에서 초청 연주회 ‘고아 3000명의 어머니 윤하차 여사를 기리며’를 열었으며, 평창올림픽 문화 초청공연에서 광주시 대표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또 광주시립발레단과 ‘백조의 호수’, ‘라 실피드’ 공연을 함께 하는 등 시립예술단과 65년에 걸친 협연 무대를 펼쳐 왔다.

한편 광주여성필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54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공연은 독주 무대부터 9중주까지 연주자가 한명씩 늘어나며 진행되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인다.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와 연주자 바로 앞에 앉아 관람할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 무료좌석’이 150여석 마련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62-0579, 010-3625-511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휘자 변진환



지휘자 이창호

‘평화의 합창’

광주시립합창단, 20일 정기연주회

광주시립합창단이 제179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합창’을 연다.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날 공연은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변진환, 이창호 두 명의 지휘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변진환의 지휘로 올라 야일로의 ‘Northern Lights’, ‘Ubi caritas’ 등 아카펠라 4곡으로 막을 울리며 에릭 휘태커의 ‘Temuna’, ‘Kala Kalla’ 등을 선보인다.

이창호 지휘자는 스테이시 김스의 ‘Ani’t-A That Good News’ 등 4곡의 흑인 영가와 함께 우호원의 ‘아! 대한민국(건곤감리)’을 공연한다.

권원(피아노), 임리라(피아노), 정지하(모듬북), 강하선(바이올린), 김도영(첼로), 한애주(팀파니) 등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변진환 지휘자는 필라델피아 바흐 소사이어티와 필라델피아 싱어즈 코랄에서 전문 연주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뉴욕 시립 대학인 레만, 킨 음악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창호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과를 거쳐 인디애나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 디플롬을 취득하고 베네통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 킹스콰이어, 필라델피아 마스터 코랄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자 하버포드, 브린마 대학의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415-5203.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프라노 윤한나 독창회

20일 광주금호아트홀

소프라노 윤한나(사진) 독창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김연 광신대학교 조교수의 반주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에선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차레’ 중 ‘절망하지만, 누가 알겠니?’와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으로 막을 울리고,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한 날실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등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인다.

또 리스트의 ‘오! 나의 꿈 속에서’, ‘어떻게 하면?’, 김소남의 ‘산유화’, ‘진달래꽃’, 김동진의 ‘내 마음’ 등 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윤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노스텍사스 주립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거쳤다.

오페라 ‘가면무도회’, ‘리골레토’,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등 오페라에 출연했으며 광주시립오페라단의 ‘헨델과 그레텔’에서 주역을 맡았다.

지금은 광신대학교 조교수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석 2만원(학생 50%). 문의 010-3440-257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의 여름호(통권45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다가오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광주 관공에 대해 조명했다. ‘광주 관광, 프레임에 바꾸자’를 주제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특화행사, 다크투어리즘, 관광영상, 관광해설까지 여섯 개의 소주제를 다뤘다. 박종관 광주대 교수, 김광욱 광

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운호 소설가, 강진경 전남대 교수가 각 분야에 대해 내린 진단과 평가를 실었다.

‘문화인 탐구생활’ 코너에서는 최근 설립된 인문연구원 동고송에서 인문학 전파에 힘쓰고 있는 황광우 철학자를 만



났다.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그는 베스트셀러 ‘철학콘서트’를 집필했으며 현재 인문연구원 동고송의 필진들과 웹진 인문통신을 발행 중이다. ‘문화진단’에서는 오영상 생태사건의 칼럼과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서순복 조선대 교수의 ‘진 시민의 문화의병론’을 실었다.

‘문화현장’으로 김항득 사진작가의 5월 행사 사진, 김정희 시인의 터키 기행문, 2019년 세계청년축제를 기획 중인 김성환 축제감독의 준비과정을 소개한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플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